

명사칼럼

新산업혁명의 중심지로 NEXT KOREA 선도하는 전북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063-280-2004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과학과 기술이다. 우리나라도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국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글로벌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이 핵심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외 규제완화,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 지표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화 속에 MB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면 모든 기업들이 앞다퉈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도권은 거대공룡이 되어 국가경쟁력 성장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찾아야 하며, 단기적 성장 측면에서 수도권 육성이라는 유혹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나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에는 지방경쟁력

확보가 근간이며 관건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의 한축으로 일본, 중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수용할 거집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글로벌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새만금이라는 "새로운 땅 새로운 미래"가 있다. 지난날 '한강의 기적'을 통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새만금의 기적'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를 연결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개발과 해외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지금까지 13개 외국 기업체의 관계자들이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했고, 지금도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계속 분의해 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역과 중동, 아시아에서 투자 문의가 있었으며, 이들

외국 기업체 관계사들은 자동차와 식품, 화학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MB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 역시 해외 투자 유치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에 대한 논의가 국제관광지구 조성과정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인 경제자유지대로 개발하는 데 모아지고 있어, 새만금이 동북아의 두바이로 발전할 것이란 큰 희망과 함께 전복을 벗어난 세계속의 개발현장으로 발돋움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

전라북도는 타 지역과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내 자원과 기술수요, 미래성장성을 반영한 사업 찾기에 몰두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소재를 축으로 한 첨단부품소재공급기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전략산업인 첨단 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을 선도할 핵심사업으로 탄소복합소재와 플라즈마 응용 신소재분야로 특화하고 총 3,400억여 원을 투입,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산·학·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탄소섬유 생산시설 구축을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인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유치를 통해 '탄소밸리 조성사업'에 주력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 산업클러스터와 지식클러스터의 집적화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맛의 고장 전북이 '아시아 식품 수도'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2006년 기준 100조원인 식품산업 시장을 목표

연도인 2012년까지 150조원으로 확대하고 38억 달러 수준인 농수산식품 수출은 1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중국 등 동북아 시장을 북표로 하는 R&D 중심기능의 수출지향형으로 구성할 것이며 새만금지역에 조성될 농업생산단지·신항만 등과 연계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조세감면·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식품클러스터에 민·관 연구 및 생산역량을 견집, 네델란드의 '푸드밸리'나 미국의 '나파밸리'를 뛰어넘겠다는 방안이다.

고유가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최적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확실히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태양광 기업은 7개업체로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을 비롯하여 넥솔론, 솔라월드코리아, 알티솔라, 대신이앤씨 등 잉곳, 웨이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 등의 계열화가 이루어져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언제쯤 친체된 경기가 되살아날지 경제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인수특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술경쟁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이겨내는 힘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과학기술이며 다핵화된 지방과학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 기술표준 2008.12

